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중에 참빛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지진 및 해일 피해 구호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5월 1일은 교회 설립 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백주년을 기념하여 타임캡슐을 만들 예정입니다. 타임캡슐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에 대한 의견을 다음 주일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축구경기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이촌지구 거북구장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이주노동자 돕기를 위한 일일차집을 통해 230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전액, 아웅나잉 씨의 병원비로 지원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달력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 식 당 봉 사 : 청파찬양대
- \* 4/3,10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혜경b김수진b강성식 유순봉 박영희
- \* 설 거 지 봉 사 : 이준하 노우중 강미선 안길상 윤주원
- \* 다음 주 설거지 : 이수정 최재욱 최경미 김정우
- \* 새 교 우 : 이자애(7여) 이은미(청년부)
- \* 떡 대 접 : 정완수 권사 김재광 권사 (정완수 권사 생일)

참빛 찬양대

- 찬양대장: 박성실 · 총무: 이현순 · 지휘: 안홍숙 · 반주: 김수진
- 고숙이 광권희 김영순 우순덕 김희우 문복순 문영혜 박경원 유영남 박혜경
- 박옥식 백혜숙 서정순 유경순 정경례 정복순 안정숙 이정은 김미순 조순덕
- 구성실 김진경 문금석 박미영 박수경 박영희 송임희 이봉옥 이소순 이재문
- 임창선 조병주 진성숙 원인혜 이영란 박경선 정영선 김민화 강인숙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 반주자
-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9(통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 다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새로운 봄기운으로 우리에게 말 건네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춘설이 흩날리는 가운데도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에서 용기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꽃샘추위에도 푸릇함을 지켜가는 새싹의 모습에서 인내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온갖 시련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들에게서 순종과 성실함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 샅된 욕심을 채기는 이들도 없게 해 주십시오. 전쟁과 재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구호와 복구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어여뻐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 사41:10 ..... 인도자
- ♣ 교 독 문 ..... 126. 사순절(3) ..... 다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 응 답 송 ..... 참빛찬양대
- 찬 양 ..... 134(통84).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 다함께
- ♣ 성경봉독 ..... I. 요15:12-17 ..... 권미정 집사  
 ..... II. 레16:20-25 ..... 최현옥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 참빛찬양대
- 말 씬 ..... I. 우리는 친구 ..... 손성현전도사  
 ..... II. 아사셀 혹은 예수 .....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권미숙 김경연 박규석 박경선 박영희 오자영 이한림 김명희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조관행 홍선희 조현권 박아영 허호범 박성실  
 김남종 오복순 김수진b이영우 장원호 박성희 곽새롬 무명

### 월정헌금:

구명자 권미정 권혁신 김순자 박옥순 윤성종 김윤정 이성범 정완수  
 김재광 조병주 하현철 최성애 정선희 이윤석 박안수 정은선 조선환  
 이준림 이경남 정현선 최재욱 이수정 변재민 이소혜 김범진 김미현  
 이영우 무명

### 감사헌금:

이봉옥 최선미 하재두 이유일 김미희 김종락 박영신 박시내 이영우  
 안종일 정현주 박장희 김정훈 이진영 무명

### 녹색꿈헌금:

윤정덕 구성실 이윤석 박안수

### 생일감사헌금:

무명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이준림
	임정자	최경미	서원금	이은옥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김명순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최희영
	박홍재	곽권희	정선희	문복순
	박효선	허정운	허정운	김현주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유영남
	이형숙	권미숙	김재광	임영선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정현주
	정영선	이현숙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윤정화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정현숙	임창선
	김재흥	오자영	교회	교회
	김기석	이건식	교회	교회

# 아지랑이

김순진

강 건너엔

화롯불에  
된장찌개를 끓이는지  
모락모락

갓난아기  
목욕을 씻기는지  
포울포울

할미 손자  
옛날애기를 하는지  
아롱아롱

수건 두른 농부  
파발을 파는지  
송글송글

수리수리  
주문을 외웠는지  
살랑살랑 부산하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464. 믿음의 새 빛을	다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삶이 가져다주는 짐을 기꺼운 마음으로 지십시오. 알아주는 이 하나 없다, 원망 말고 지십시오. 그 짐을 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함께 :	아멘. 작은 삶의 짐도 부담스럽게 여기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짐만 질 뿐 아니라 다른 이의 짐도 저주며 살겠습니다. 제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가야할 길 바로보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김재흥 목사 기도 : 안종일 권사	기도 : 윤수진 집사 시편을 거닐다 / 손성현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이건화 집사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백혜숙 권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조문규 이건식 문영혜 진정숙 신영신
	헌금위원	방문성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새야 새야

지난겨울은 참 추웠다. 추위만큼 눈도 엄청 내려 온 세상이 새하얀 눈으로 덮였다. 마당가 앵두나무 앙상한 가지에서 참새 한 마리가 오롱오롱 떨고 있었다. 언뜻 생각해보니 저놈은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떨고 있구나 싶었다. 마침 작년의 묵은쌀이 있기에 한 바가지 떠서 마당 구석으로 뿌려놓았다. 하룻동안은 몰라서 그랬던지 조용하더니 이틀이 지나자 백 마리도 넘는 새들이 몰려왔다. 참새랑 까치랑 산비둘기랑 굴뚝새, 양진이, 오목눈이... 갖가지 새들이 내려와 재재거리며 쌀을 쪼아 먹는다.

쌀을 먹는 데에는 작은 새들이 훨씬 유리한 모양이다. 커다란 까치는 많이 굶다. 부지런히 쪼아 먹느라 모두 바로 곁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이토록 갖가지 종류의 새들이 몰려와서 함께 모이를 먹을까? 조금 신기했다.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쌀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 참새일까. 산비둘기일까? 어느 것이든 먼저 알아차린 놈이 누군가 데려왔을 게다. 누구한테 어떻게 전해줬을까? 자기들끼리한테만 알린 것이 다른 새들한테까지 들켜버려 이렇게 여러 가지 새들이 함께 몰려온 걸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모든 새들한테 소문을 퍼뜨린 걸까?

새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내가 듣기엔 그냥 지지지, 짹짹, 깹깹, 이런 토막 소리밖에 안 들린다. 참으로 사람이란 무식하고 무지하다. 새들의 말소리도 알아듣지 못하니 말이다.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토막토막 내고 있는 소리로도 서로 대화가 되는 모양이다. 가끔 가다가 뭐라 뭐라 지지거리면서 서로 흘끔흘끔 쳐다보는걸 보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아이구, 맛있다!” “어떻게 이런 데 쌀이 있을까?” “그래 말이지.” “눈이 내릴 때 하늘에서 쌀이 내려온 걸까?” “그건 아니야. 하늘에서 쌀이 내려온 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럼 어디서 뿌려진 거지?” “아마 마음 착한 사람이 뿌려준 걸 거야.” 새들이 조잘대는 것을 내 멋대로 해석해보았다. 그런데 이런 소리도 들린다. “이것 묵은쌀이지? 어쩐지 맛이 없잖니.” “그래,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내 생각엔 아마도 누가 못 먹을 성싶으니까 이렇게 인심 쓰는 척 뿌려준 걸 거야.”

옛날에는 원래 사람도 짐승도 나무도 다같이 이야기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노루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던 게 생각난다. 봄에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가면 새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한다. “저쪽 골짜기에 가면 산나물이 많

단다.” 한낮이 되어 목이 마를 땀 또 다람쥐가 나타나 이야기한다. “저기 아래쪽 찰레덩굴 옆에 샘물이 있단다.” 그래서 모두모두 사이좋게 살았다는 얘기다. 그러던 것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짐승들과 나무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일껏 머루 다래가 많다고 가르쳐주면 조금만 가져가야 할 것을, 혼자서 죄다 따가지고 사라져버린다는 거다. “에그, 다른 사람 몫도 남겨줘야지” 하면 “그래, 다음엔 그럴게” 해놓고서는 또 혼자서 다 가져가버리곤 했다. 그래서 새들도 다람쥐들도, 노루나 오소리들도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딘가에 무엇이 있어도 절대 안 가르쳐주고 저희들끼리만 알아듣는 말로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요새는 아무리 귀담아들으려 해도 짐승이나 나무들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했다. 그럴듯한 이야기다.

만약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자연 속의 동식물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 지저귀는 새소리를 알아듣고, 사슴 노루 같은 들짐승들의 말을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변화에 민감한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유익해질 것이다.

쥐, 돼지, 개미 같은 동물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감지해내는 특별한 감각기능을 가졌다고 하지 않는가. 옛날얘기에도 나오는 일화처럼, 어떤 마음 좋은 부자 노인이 쥐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줘서 집이 무너지기 전에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만 봐도 그렇다. 개미가 높은 언덕에 집을 지으면 그 해는 장마가 진다든가, 까치집이 높이 쌓였나 얇게 쌓였나, 그것을 보고 흉년 혹은 풍년의 여부를 알았다고 한다.

사람이 풀과 나무, 새들과 물고기나 뛰어다니는 짐승들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돌아다니는 라디오’ 라 불리는 임실택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떠들어대며 다닐 테고, 욕심쟁이 고약한 사람은 뭔가 노다지라도 얻고 싶어 수작을 부릴 테고, 거기 따르는 부작용도 엄청 많을 것이다.

사람이란 동물은 어쩔 수 없는 악마일지도 모른다. 악마니 마귀니 악귀니 떠들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런 못된 것들이 모두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만 빼고는 다른 자연 속의 동물들은 자연을 파괴하거나 더럽히지 않지 않는가. 온갖 나쁜 짓은 사람들이 다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루실 할머니 말씀이 맞는 말이다. 짐승들과 나무나 풀들이 사람들과 말을 안 하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지금도 산골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 절집 스님들 중엔 새들이나 작은 다람쥐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있다 하지 않는가.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 새야 새야, 정말 너희들이 부럽구나. - 권정생, 『우리들의 하느님』 중에서